

Theme 7. 이해가 도저히 안되면, “그런갑다”

[개요]

■ 여기서는 배경지식의 부재, 생략된 서술 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정보에 직면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이해가 안되면 그냥 그 자체를 fact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텍스트 처리에 있어 ‘어떻게든 사고해서 이해하는 것’이 베스트다. 이 방법은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우리가 평가원 지문을 읽는 목적은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우리는 과학자, 철학자, 기술자, 행정학자, 법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서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다.

그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문에서 알려주는 만큼만 파악하면 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과가 있더라도,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주지 않았는데 배경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이 지문의 다른 내용과 연결해서라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면 그냥 “그런가보다, 그런게 있나보지 뭐~” 하면서 ‘이해가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 그때 만약 설명해준다면 이해해보고, 아니면 굳이 이것 자세히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겠지.’** 하고 넘어가면 된다.

1. 어떻게든 사고해서 이해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아무리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자꾸 **왜?**라는 생각이 드는 인과, 설명 등의 정보 또는 정의되지 않은 낱선 용어를 마주쳤을 때,

1. 혹시 그 문장에 포함된 단어 중 이전에 정의된 뜻을 입혀서 읽지 않았는지 확인해본다.
2. 용어를 몰라도, 그 용어 글자 그대로 충분히 그 용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
3. 이전에 나왔던 정보를 붙여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본다.

앞에 나온 내용이나 용어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해 보라는 것이다. 그래도 이건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왜? 라는 생각을 **“그런가보다, 그런게 있나 보지 뭐~이해가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 그때 만약 설명해준다면 이해해보고, 아니면 굳이 이것 자세히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겠지.”** 하고 넘어가면 된다. WHY? 하지 말고, WHAT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2. 특히 지문 초반부에서 더욱 ‘그런갑다’가 중요하다.

지문 초반부는 그 앞에 쌓여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조 정보가 부족하여 이해가 쉽지 않고 납득이 어려운 정보가 많을 수 있다. 그럴 때, “아니 이거 왜 이런 거지?” 하면 독해를 이어 나갈 수가 없다. 그냥 chill 하게, “그런게 있나봐, 그런가보지 뭐.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하고 글자 그대로 정보를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뉴스에서 “내일은 눈이 오겠습니다.” 하면 “왜? 내일 눈이 오는 이유가 뭐지? 이러지는 않는 것처럼, 그냥 글자 그대로 fact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지문 맨 첫 문장이 위와 같을 때, 정책은 정의를 해줬지만, 정책 수단이 뭔지를 모른다. 따라서 정책 수단의 특성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니, 그런 걸 고려 해야되나 보구나~ 하고 이후에 설명해주면 연결해서 비어 있던 공간을 채워주고, 혹시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뉴스를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fact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된다. 약간 주입식 교육 느낌으로 저항 없이 받아들이자.

확실히 이 정도까지는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해 해야돼. 이런 확실한 기준은 제시하기가 힘들다. 학생 by 학생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독서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의 "1. 어떻게든 사고해서 이해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 안되면 이렇게 "그런갑다" 사고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단, 한번 기출에서 본 지식은 다음에 그 소재를 또 활용할 때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올라간 상태여야 한다. 과거 기출에 나온 개념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그런갑다"로 뚫은 지문은, 다 풀고 나서 독해 태도와 별개로 시간을 두고 이해해 배경지식으로 추가시키고 넘어가도록 하자. 특히 기본적인 경제 용어들 (환율, 채권 등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핵심은 이거다. ?가 드는 내용은, ?를 찌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걸 !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연결해서 이해해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사고는 배경지식이 없는 내용을 마주했을 때 뿐만 아니라, THEME 4에서 배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마주할 때도 필요하다.

1. 앞서 THEME 4에서 배운 [추상적,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범주]에서 이런 '?->!' 식 사고를 강조했고,
2. [인과]에서 이게 원인이 돼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든 인과를 마주했을 때 "아 그냥 이런 이유, 조건, 근거로 이렇게 되나보다~"하고 그냥 지문에 나온 만큼,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3. 또, [요소 간 관계로 주어지는 인과]에서도 (A)↓ ⇒ (B)↑ ⇒ (C)↑ 예를 들어 이런 관계가 주어졌을 때, "A가 작아지면 B가 커진다는데.. 왜 커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인과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면 "아 그냥 A가 작아지면 B가 커지나 보지 뭐~" 이렇게 그냥 글자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면 된다.

기억하자, 이해할 수 없는 정보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수용 "그런갑다" & ?(물음표)찌고 넘어가기]
 [이후 그 내용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정보가 나오면, 앞에서 나온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게 항상 의식적으로 준비는 해놓기]